

우리는 왜 북한공산주의체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관점에서 -

- 李 相 禹 外 -

1. 이 념 문 제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소위 Marxism-Leninism을 조선의 사정에 맞게 적용시킨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번 강조해 온 사실이다. 대체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이념을 세워 놓고 그 다음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투쟁을 해서 정치권력을 장악해 나간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독특하다. 북한의 경우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 이의 정당화를 위해서 반대로 이데올로기를 붙였다. 먼저 이념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대안중에 골라서 Marxism-Leninism을 택한 것도 아니고, 소련군 점령하에서 이미 부르조아지가 모두 없어진 다음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이렇듯 해방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프롤레타리아 해방이 있었겠는가? 북한의 이념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집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이념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념을 현재는 어떻게 형성해 놓았고,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註) 이 小考는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에서 지난 8월 29일 개최한 李相禹교수(서강대) 초청 “북한정치”에 대한 세미나 내용의 일부를 사회교육과 吳英澈교가 요약한 것임.

북한은 하나의 계층의 지배가 아니라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일개 집단이 지배하고 있고 또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념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세속적 종교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체제와 가장 가까운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철저한 절대조직을 가진 종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신의 재배를 김일성의 지배로 바꿔놓은 것 이외에는 다를 바가 없다. 예를 들면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착한 사람되는 것이고, 애국하는 것이며, 모든 영광은 김일성에게 돌릴 정도로 세속적 종교화 해 놓고 있다. 어른들에게 어떻게 저런 말이 통할까 할 만큼, 일반 정치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세속적 종교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북한이다.

이것을 우리 민족사회의 일부분인 북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나머지 우리 동포들이 이런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김일성지배집단을 경계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우리의 생각이 나온다.

2.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개인마다 사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 서있는 우리는 어떤 형태의 전체주의도 절대 반대한다. 좋은 사회의 평가기준을 개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회체제 평가기준의 단위를 집단적인 전체로 보느냐 개인으로 보느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 본다. 국가든 사회든 모두 개인을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일 소중한 것은 개인 각자간의 삶인데 이 개인적 삶의 질이 높아 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이다. 여기에 어떠한 허구를 붙여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반전체주의적 견해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K·popper가 2차대전때 나찌스때문에 망명해서 호주에서 나찌즘이라는 전체주의를 생각하면서 쓴 「개방사회와 그 적들」이 있는데 인류역사상에 있었던 전체주의 망령에 대해 아주 예리하게 전개해가면서 비판하고 있다.

개인의 문제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그것은 자유다. 자유란 전체주의에서 말하는 “집단에서의 자유가 곧 내자유”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우리는 왜 북한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① 타인의 恣意로 부터의 자유 - 자기의 뜻에 따라 거기에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제일 소중한 개인의 자유는 자의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한다.

② 복지 - 먹고 사는데 위협을 받아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없다. 기본적인 생존조건의 만족은 가장 소중한 인권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③ 민주참여문제 -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 즉 정치에 자신이 끼여야 된다. 자의에 의해 내가 지배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민주참여의 조건이 나온다.

④ 자기발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성장을 통해 성취를 느끼고 보람을 찾는데서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 복지(기본생존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본조건), 민주참여문제, 자기발전의 기회 등 4가지가 확보된 사회야말로 좋은 사회라고 본다. 따라서 4가지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나라가 바람직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추구하는 전체주의는 지금 현재는 둘째치고, 앞으로 이룩하겠다는 모형자체가 전체주의이다. 북한이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에 도착한다해도 그 이상을 반대한다. 지향하는 점에서부터 우리는 성취는 못해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은 바라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이므로 이것은 반대한다.

3. 우리민족의 발전과 민족사적 견지에서 북한이 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반민족적이라고 본다.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왔던 전통을 새로 만들어낸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끊어버렸다.

한 민족이 하나의 단위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추상적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민족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족정신은 여러사람이 지켜오던 전통, 문화, 풍습, 사고

양식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정신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자신들의 임의 대로 만들어 놓은 가치질서를 기준으로 하여 모두 잘라버렸다. 당장에는 이 피해가 얼마나 클 지 모르지만 이것이 누적되어 십수년이 지나서 그들이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에 탄생한 사람들로 북한사회가 구성될 때가 되면 민족사적으로 보아 그들은 완전한 고아가 되버릴 것이다. 그 결과, 후에 이것을 회복하더라도, 북한을 우리사회에 통합하더라도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한다는 점에서 반민족적이다. 더군다나 그 목적이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집단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